

드론 예술공연 '꽃심, 나르샤' 첫 선

6일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개막식에서 제작발표회... 7일 정식 공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의 드론 군집비행과 같은 드론예술 공연이 전주에서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6일~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특설전시장에서 열리는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 개막식 행사의 일환으로 '드론 예술공연 제작발표회'를 갖는다고 3일 밝혔다.

3일간 개최되는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는 전라북도 및 전주시가 미래 신성장산업 관련 이슈를 선점하고 산업육성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공동개최하는 행사로 7개 전시관에서 160여개 부스가 마련되고 경진대회 및 컨퍼런스, 각종 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

이번 '드론 예술공연 제작발표회'에서는 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전주만의 문화예술적 자산과 첨단항공장비인 드론을 결합한 지역특화 킬러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드론 예술공연' 뮤지컬 형식의 '드론 예술공연'의 결과물이 첫 선을 보인다.

협력사인 (주)씨티미디어즈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개막식 이벤트에서는 약 30분 동안 △드론 예술공연 추진 경과보고 △드론 자율주행 군집비행 △주연배우 뮤지컬 주제곡 퍼포먼스 등이 관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이 드론예술공연은 드론과 문화예술, 미디어아트(홀로그램, 3D맵핑)를 결합해 전주정신인 '꽃심'을 주제로 △올곧음 △창신 △대동 △공평을 현대적



사회인정망 구축 협약

고창군과 고창경찰서가 3일 원격검침 시스템 '부모안심 톱'을 활용한 사회인정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박우정 군수와 김성재 서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창군청 제공>

감각에 맞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시와 진흥원은 이번 제작발표회에 이어 오는 7월에는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1주일 동안 총 10회에 걸쳐 드론기반 융합미디어 아트쇼인 '꽃심, 나르샤' 정식공연도 준비한다. 국제 미래산업 박람회로 펼쳐지는

이번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를 통해 그동안 준비해 온 드론 예술공연의 성과를 홍보하고 쇼케이스 형식의 뮤지컬 주제곡 퍼포먼스를 선보임으로써 올 하반기에 화려한 막을 올릴 드론 예술공연의 붐을 조성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이를 통해 드론축구를 통해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한 전주시가 드론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신개념 ICT융복합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채규남 기자

'책이 모이면 도서관이 됩니다'

전주시, 8월까지 '범시민 도서관 캠페인' 전개

전주시가 독서문화 축제를 도서관 캠페인을 통해 준비하기로 했다.

'2018 전주독서대전'은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주 한벽문화관 일원에서 열린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책이 모이면 도서관이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서관 캠페인을 한다.

모여진 책들은 오는 9월 열리는 전주독서대전 행사를 통해 나누거나 해외 동포 학교도서관에 재기증될 예정이다.

기증 대상 도서는 2015년 이후 출판된 도서로 전주시 11개 시립도서관에 창구를 마련해 수집하게 된다. 또 300권 이상 다량의 책 기

증을 원할 경우에는 완산도서관에서 직접 찾아가 수거한다.

이와 관련 오는 20일까지 '2018 전주의 책' 선정을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도 진행한다.

각 유관 기관별로 추천받은 도서 중 선정된 50권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 후 실무기획단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2018 전주의 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도서는 2018 전주 책 축제에서 △작가와의 만남 △전시회 △시민 토론 △동아리 운영 등 주요 행사의 중심 서적이자 주제로 활용될 예정으로 투표는 전주 독서대전 홈페이지(www.jbook.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사회적경제조직 자금조달 능력 키운다

전주시, 크라우드펀딩 사전설명회 개최

전주시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위해 자금조달 능력을 키워 준다.

시는 3일 2018년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전주지역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오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공유경제 크라우드펀딩 대회의 주요 일정을 안내하고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사전설명회에 참여한 사회적기업과 온두레 공동체 등 사회적경제조직 대

표들은 오는 9일까지 신청할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해 여러 가지 펀딩 방법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였다.

향후 1:1 전문 컨설팅과 프로젝트 웹페이지 디자인 등을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전주시 사회적경제조직 크라우드펀딩대회 홈페이지가 개시되면 사회적기업 플랫폼 '오마이컴퍼니(www.ohmycompany.com)'를 통해서 직접 자금을 모으며 기업홍보를 할 수 있다. 또 SNS 등을 통한 마케팅 기법도 학습할 수 있어 향후 전국단위 마케팅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채규남 기자

아파트 단지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새벽 시간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위에 누워 있던 70대 남성을 보지 못해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1시25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도로에 누워 있던 B(7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민 기자

밤새 술 마시다 몽골 유학생 '살인미수'

"그만 집에 가라"는 말에 기분이 상해 몸싸움 끝에 식칼로 등 찔러

큰 이유는 없었다. 그저 술에 취해 서로에게 상처 되는 말이 오가다 칼까지 손에 쥐게 됐다. 밤새 들이킨 술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몽골 유학생 A(20)씨 손에 들린 과도는 피로 물들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동향이며 평소 친하게 지내는 선배 B(25)씨와 술잔을 기울였다. B씨의 여자친구인 C(23·여)씨도 함께였다.

술자리에서 기분이 좋아진 B씨는 C씨와 함께 사는 전북 익산시 신동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갔다. 술자리는 날을 넘겨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고향 이야기와 학교생활 이야

기로 밤이 새는 줄 몰랐다. 하지만 술에 취하며 말이 거칠어지고 언성이 높아졌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A씨는 B씨의 "그만 집에 가라"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 A씨가 B씨의 말에 대들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툼 끝에 A씨는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었지만 C씨가 빼앗았다. 다행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되는 싸움에 흥분한 A씨가 또다시 22cm 길이 과도를 집어 들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B씨가 달아났지만 A씨는 B씨의 등을 찔렀다.

사이가 좋았던 선우배가 강력사건

피의자와 피해자로 나뉜 순간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익산경찰서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달아나는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사자들과 목격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농촌소득금고 용자지원사업 신청·접수

전주시, 13일까지... 연 1%로

전주시가 지역 농업인들 영농자금 마련을 위해 용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상반기 농촌소득금고 용자지원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또는 사업장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서 거주하면서 전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과 소득원 개발을 위한 영농환경 개선 사업 등의 영농 목적

으로 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에 총 3억 5000만 원을 용자 지원하고 하반기에도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올해 총 7억 원을 용자해 줄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농업인의 경우 3000만원 이하, 농업법인은 5000만원 이하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으며 용자조건은 연 1% 이율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신청 접수 후 오는 5월 초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자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